

“노동자 투쟁으로 더 나은 세상 만들자”

7일, 청와대 앞 노조 결의대회...노조파괴 중단, 재벌 전면개혁, 조선업살리기 등 촉구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6월7일 청와대 앞에서 ‘노조파괴 중단, 재벌 전면개혁, 조선산업살리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보장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자행한 노조파괴와 불법과건으로 고통받은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과 유성기업지회, 동진지회,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조합원, 지난해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공세에 시달리는 조선업종 조합원 등 1천여 명이 서울 도심 투쟁을 마치고 집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적폐를 청산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벌써 실망스럽다. 대선공약인 전교조 범외노조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6·30 사회적 총파업을 성사하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현 갑을오토텍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다른 재벌 처벌하지 않고 적폐 청산을 끝내려는 것 같다. 여기 현대차그룹 불법행위로 고통 받은 동지들이 있다”며 “노동자 힘으로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이날 대회를 마치고 ▲일방 구조조정 중단 ▲부실 경영책임자 처벌 ▲총고용 보장 ▲사회 교섭체 구성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조선산업 살리기 사회교섭 나와라”

7일, 조선노동자 결의대회...구조조정 중단, RG 발급 촉구. 청와대로 삼보일배

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6월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조선산업 지원 확대 촉구, 조선노동자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 확대와 조선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구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금

속노조는 매년 정부에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화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장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성 경남지부 성동조선지회장은 “성동조선은 10월부터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출입은행은 끈질기게 구조조정만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인지, 수출입은행의 독단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질타했다.

김진석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잘 나가던 울산경제가 무너졌다”며 ▲조선산업 고용 보장 정책 수립 ▲사회 교섭 재개 등을 요구했다.

“재벌은 헌법 위에 있나”

현대차 노조파괴, 하청노동자 청와대 앞 농성...14일까지 현대기아차그룹 노무정책 전면개혁 투쟁

현대기아자동차그룹(아래 현대차)이 저지른 노조파괴,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노조와 유성기업지회, 울산지부 동진지회,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6월7일 청와대 앞에서 ‘유성기업 동진오토택현대기아차사내하청 노동자 청와대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현대차 재벌적폐 청산으로 재벌개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오상룡 노조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게 바뀌고 있지만, 현대차의 노조파괴, 불법파견은 여전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현대차의 악질 노무관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오늘부터 금속노조는 기다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운영호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벌써 7년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힘겹게 연명하는 하루”라며 “현대차가 당장 노조파괴를 중단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홍선 울산지부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 불법파견은 2010년, 2015년 판결로 이미 결론이 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거두고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을 당장 구속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6월7일부터 14일까지 현대기아차그룹 노무정책 전면개혁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현대차 앞 1인 시위와 재벌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집중집회 등을 벌인다.

콘티넨탈지회, 부당해고 5년만에 원직복직 합의

해고·징계 철회, 2012·2013년 임금교섭 합의... “소수노조 무력화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절실”

노조파괴로 해고됐던 콘티넨탈지회 전직 임원 두 동지가 5년 만에 원직으로 복직한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지회장 조남덕, 아래 지회)는 지난 6월2일 교섭에서 2012년부터 끌어온 2012년, 2013년 임금교섭과 부당징계 철회,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에 합의했다. 노조파괴 과정에서 해고당한 박윤종 전 지회장과 김종원 전 부지회장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조남덕 지회장은 “5년 동안 해고자 생활을 한 동지들의 복직에 합의해 기쁘다”며 “노조파괴 인정과 사과를 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1월 “단일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다”며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키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를 뒤집으면서 징계 해고가 장기화됐지만 대전고등법원은 2016년 6월 30일 부당해고와 징계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회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콘티넨탈과 교섭을 벌여 교섭과 징계 철회를 이끌어냈다.

지회 조합원들은 6월5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가결하고 소수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 투쟁에 나서자고 결의했다.